

KIRIBATI FIJI

NAURU

MICRONESIA

GUINEA

SENEGAL

ANGOLA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연혁집

2018. 10

GUINEA-BISSAU

GHANA PERU

MADAGASCAR TUVALU

SOLOMON ISLANDS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업협력센터

KIRIBATI FIJI

NAURU

MICRONESIA

GUINEA

SENEGAL

ANGOLA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연혁집

2018. 10

GUINEA-BISSAU

GHANA PERU

MADAGASCAR TUVALU

SOLOMON ISLANDS

• CONTENTS

제1장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개관

제1절	ODA란 무엇인가	008
제2절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개요	010
	1.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개념	
	2.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추진배경	
	3.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사업추진 절차	

제2장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추진현황

제1절	연안 개발도상국 지원현황	014
제2절	중서부태평양 지원현황	
	가. 키리바시	016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나. 투발루	028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다. 마이크로네시아	038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라. 피지	046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마. 나우루	052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바. 솔로몬 제도	056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사. WCPFC	058
1) 기구소개	2) 지원현황
제3절 아프리카 지원현황	
가. 기니	059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나. 기니비사우	068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다. 세네갈	078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라. 가나	084
1) 국가소개	2) 연도별 지원현황
3) 지원물품	4) 물자전달식
마. 앙골라	090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바. 마다가스카르	096
1) 국가소개	2) 연도별 지원현황
3) 지원물품	4) 물자전달식
제4절 남미 지원현황	
가. 페루	100
1) 국가소개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3)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5) 물자전달식	

원양산업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 모색, 수산분야 ODA 확대 절실

연안국 지원사업 예산 확대 시급 해외수산자원 확보 및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 차원에서 필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단순 생산 위주의 어업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연안 자원국과의 합작사업을 포함해 유통, 가공, 해외 양식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원양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이 심화되면서 우리 원양산업은 단순한 산업적 경제논리에서 한발 나아가 주요 식량산업으로서의 그 의미와 기능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연안국 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해외 수산자원 확보와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 차원에서 대폭 확대하는 등 수산분야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원양 산업계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연안국 물자공여사업은 우리 원양어선이 입어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연안 개발도상국을 선정해 이들 국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정부 차원에서 해오던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과는 달리 '연안국에 대한 물자공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우리 원양어선이 출어하고 있는 연안 개발도상국이나 국제 지역 수산기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시행 첫 연도인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불과 2억 4,600만 원이었으나 매년 조금씩 증액해 최근에는 한해 11억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5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안국, 특히 우리 원양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연안국 정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선정해 지원해야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혜국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원해야 할 대상 국가에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몇몇 국가만 국한해 소규모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조업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열세이다 보니 조업 경쟁국처럼 항만 건설, 가공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태평양 PNA 국가(키리바시, 솔로몬, 마셜,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투발루 등)들을 비롯한 연안국들은 자원자국화 정책을 내세워 연안국 경제 원조와 어업 쿼터 할당을 연계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나서 해외 어장을 계속 유지, 확보하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원양어업의 제반 위기 상황은 이미 10년 전인 2007년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그 당시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해외 어장은 축소되고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아 단순 원양어업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원양어업과 함께 어자원이 있는 연안국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어획물 운반, 가공, 유통, 해외양식 등이 어우러지는 원양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원양산업발전법의 제정 취지였다.

연안국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원양산업발전법 제정과 함께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사업이다.

사실 연안국 지원사업은 개별 원양선사들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해외 수산자원 확보라는 자원외교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 대폭적인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연안 자원국들이 국가별 어획능력 감축에 나서는 등 점차 공급자 위주로 수산 자원 시장이 개편되고 있어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연안국 지원 강화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말았다.

KOICA의 연안국 지원사업을 어업협력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등 수산분야 ODA사업 예산을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췌로 이번 책자 발행을 통해 연안국 물자공여사업의 지난 발자취를 돌이켜 보며 반성과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8.10.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윤명길**

제1장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개관

제1절 ODA란 무엇인가

제2절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개요



ODA란 무엇인가

1. 국제개발협력과 ODA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이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를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빈곤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개발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원조(Aid)와 관련해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ODA의 개념적 요건

OECD DAC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셋째,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공여 조건으로, 차관인 경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3. ODA의 지원형태

ODA는 전달 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 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Crosscutting)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Contribution)하거나, 아시아 개발은행(ADB :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 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Subscriptions)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방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ODA를 경쟁 입찰 제한 등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서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속성 원조는 ODA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게만 부여하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협력대상국이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I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개요

1.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의 개념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이하 물자지원사업)은 연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해양 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산업물자(제빙 컨테이너, 어구 등)와 교육·사무 물자(컴퓨터, 복사기, 차량 등) 등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물자를 증여하는 사업으로 수원국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ODA사업 분류상 무상원조로 볼 수 있으며, 수원국인 연안 개도국과 우리나라 간의 양자 간 협력사업으로 분류된다.

2. 사업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수산협력 관련 사실상 최초의 ODA사업은 2002년 감척어선 대외 무상원조 지원이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KOICA 차원에서 남태평양 연안국에 차량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물자지원사업 초기 추진 당시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강화 및 중국, 대만 등 조업 경쟁국의 부상으로 안정적 어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조업 경쟁국은 연안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확보 및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보유국은 “EEZ 자원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및 국내 어업개발”을 목표로 대연안국 어업협력 및 투자를 전제로 한 조업 권한 할당방침 확립·시행하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UNCLOS 및 국제기구 협약의 의무사항인 “연안국에 대한 재정, 기술, 인적 자원” 이행실적을 매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물자지원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대체로 수산분야(자원보유국)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온 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연안국과의 유대강화 및 수산분야에 특성화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하에 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자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3. 사업추진 절차

물자지원사업은 수원국 요청 물품 수요조사-국가별 지원규모 및 지원물품 선정-물품구매 및 해상운송-전달식 개최 순으로 추진된다. 수요조사는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수원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수산당국과 이메일 교신, 전화통화 등을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물품을 선정한다.

이후, 수원국 요청 물품을 토대로 지원품목 List 작성,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국가별 지원 규모 및 최종 지원물품 확정하고 수원국의 요청 물품을 반영하여 구매한 후, 해상운송으로 수원국에 운송한다. 물품 운송이 완료되면 수원국에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 확인 및 전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진출업계, 대사관, 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달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업무 단계	주요 내용	관련 기관
예비지원 대상국 결정	진출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지원대상국 결정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업계, 명예해양수산관
▼		
수요조사	수원국 수산당국과 이메일·전화 등 직접 수요조사 실시	한국원양산업협회 수원국 수산당국
▼		
물품확정·구매	수원 국가별 지원물품 확정 및 구매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		
운반선 물색 및 선적일정 확정	선적지역별 운반선 스케줄 파악 및 물자의 용적감안, 국가별 컨테이너 예약	한국원양산업협회
▼		
물품 검수, 선적 및 통관	구매 물자 검수, 홍보보고 부착 및 물품선적	한국원양산업협회 수원국 수산당국
▼		
물자전달식	해양수산부 인수증 확보 (절차) 연안국 일정협의→해수부와 일정협의→연안국과 일정확정→전달식 개최	해양수산부 원양협회, 진출업계 명예해양수산관, 대사관

[물자지원사업 추진절차]



제2장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추진현황

제1절 연안 개발도상국 지원현황

제2절 중서부태평양 지원현황

· 키리바시 · 투발루 · 마이크로네시아 · 피지 · 나우루 · 솔로몬제도

제3절 아프리카 지원현황

· 기니 · 기니비사우 · 세네갈 · 가나 · 앙골라 · 마다가스카르

제4절 남미 지원현황

· 페루



I 연안 개발도상국 지원현황

1. 물자지원사업의 규모 및 추이

2006년 해양수산 ODA사업을 통해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난 11년간 중서부 태평양 7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남미 1개국, 국제기구 1개에 약 75억 원 규모의 물자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단위 :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 규모	246	333	400	400	491	286	979	1,067	1,100	1,100	1,100	1,100
수원국	6	5	6	4	4	3	10	10	8	10	8	3
지원 품목 수	468	1,340	693	1,459	236	19	1,668	757	499	1,331	922	62

[연도별 지원실적]

전체 지원규모를 보면 2006년 246백만 원으로 시작된 물자지원사업은 매년 꾸준히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2012년 979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지원액이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1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 물자지원사업 지원현황

물자지원사업 수원국은 크게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로 분류할 수 있다. 2017년까지 지원된 물자지원 현황을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는 키리바시에 전체 지원금액의 21.7%인 약 18.2억 원을 11회에 걸쳐 지원하여 최대 지원국으로 나타났다. 투발루가 약 8.8%의 비중으로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였으며 이외에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나우루, 솔로몬제도 순으로 약 14억 원이 물자지원을 통해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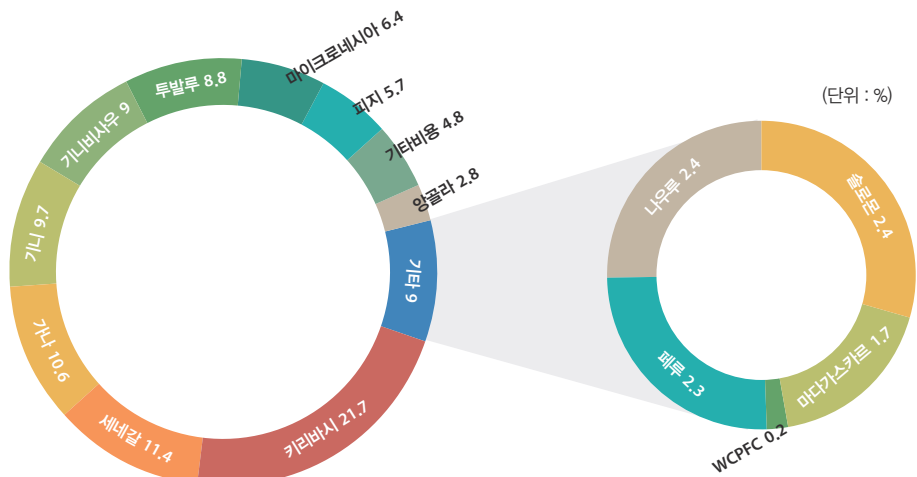
아프리카에서는 기니에 전체 금액의 9.7%인 8억 3천만 원을 10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기니비사우가 9%의 비율로 7억 7천만 원 규모의 물자지원을 받았으며 이외에는 세네갈, 가나,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순으로 물자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는 남미의 페루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도 각각 2회, 1회에 걸쳐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1년간 총 14개국 1 국제기구에 지원을 실시하였다.

(단위 : 천 원, %)

구분	국가	지원금액	지원횟수	비율
태 평 양	키리바시	1,863,465	11회	21.7
	투발루	758,294	10회	8.8
	마이크로네시아	554,355	6회	6.4
	피지	492,975	5회	5.7
	나우루	209,855	3회	2.4
	솔로몬	207,712	3회	2.4
	WCPFC	20,084	1회	0.2
아 프 리 카	기니	835,083	10회	9.7
	기니비사우	774,767	10회	9
	세네갈	979,923	6회	11.4
	가나	909,624	6회	10.6
	앙골라	239,793	4회	2.8
	마다가스카르	146,312	2회	1.7
남미	페루	194,922	2회	2.3
	기타비용	414,836	—	4.8
	합계	8,602,000	79회	100.0

[지역별·국가별 지원현황]



[지역별·국가별 지원현황 비율]

I 중서부태평양 지원현황



KIRIBATI

가. 키리바시

1) 국가정보

키리바시는 중부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로, 1788년 영국 해군 대령 길버트가 길버트 제도에 상륙한 뒤 영국의 식민지화가 시작되었다. 1916년 길버트 제도와 엘리스 제도가 영국에 병합되었고 1971년 모두 자치권을 얻었다. 1978년 엘리스 제도가 투발루로 분리된 후 1979년 7월 독립하였다.

정식 명칭은 키리바시공화국(Republic of Kiribati)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마이크로네시아 중부에 위치한 길버트 제도(Gilbert Islands), 라인 제도(Line Islands), 피닉스 제도(Phoenix Islands)에 있는 33개 환초(環礁)가 영토이다. 격전(激戰)을 치른 곳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잠시 일본군에 점령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영국령으로 귀속되었다. 미국이 핵실험 장소로 이용하던 피닉스 제도와 라인 제도는 키리바시 독립 때에 완전히 양도되었다. 국명은 길버트 제도의 옛 이름인 'Gilberts'를 키리바시어(語)로 표기한 것이다. 행정 구역은 길버트·라인·피닉스 제도의 3개 구역(unit)으로 되어 있다.

키리바시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DCs)으로서 다른 태평양 도서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존자원 부족, ▲국내 산업기반 빈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산업 활동은 코프라(말린 야자열매) 생산 및 수산업 정도에 불과하고, 공공부문이 고용 및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원양어선 국가들로부터 받는 입어료이다.

키리바시는 대부분의 공산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품 무역 적자는 ▲외국 정부로부터의 입어료 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해외자산(RERF) 수익 등의 수입을 통하여 보전되고 있다.

2) 키리바시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한·키리바시 정부 간 어업협정(1980. 12)을 체결하고, 동 협정 하에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키리바시 수산부와 매년 참치연승어선이 조업 가능하도록 동 수역 입어조건 협상을 통하여 입어약정을 갱신하여 왔으며, 참치선망어업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개별 회사 차원에서 입어하던 중 2009년부터 협회 차원의 입어협상 추진해오고 있다. 참치연승어업의 경우, 협정 체결하에 100여 척이 꾸준히 조업하고 있다(단, 2018년 현재 키리바시 측 연승 입어정책 변경으로 일시적 입어 중단 상태).

(2) 조업현황

태평양 참치선망선의 100%인 28척 및 태평양 참치연승선의 90%인 100척 이상이 조업해 왔으며, 참치선망 생산량의 40%, 참치연승 생산량의 30%가 생산되는 매우 중요한 어장이다.

연도	척수	어획량
2010	28	51,973
2011	28	29,664
2012	28	125,815
2013	28	38,040
2014	27	182,586
2015	28	189,038
2016	28	106,749
2017	25	97,283

* 1990년대 초 동원산업(주) 외 4개사로 구성된 연합선사(사조산업, 신라교역, 오양수산, 한성수산)

** 협회 단위 입어 시작. 2009~2012년(3년) 장기입어약정 체결. 3개월 단위 입어(최소 1회 의무입어조건)

[최근 키리바시 참치선망 입어동향]

연도	척수(척)				어획량(년, 톤)
	기본	추가	계	실조업	
2009/10	88	8	96	92	12,490
2014/15	73	14	87	87	14,415
2015/16	66	5	71	71	13,884
2016/17	72	5	77	77	10,038
2017/2018	-	-	-	59	3,341

* 2017/2018학기 실조업척수 및 어획량 : 2017년 1월 말까지 실적

[최근 키리바시 참치연승 입어동향]

(3) 어장의 중요성

키리바시에서의 참치 생산량(2014)은 70만 톤으로서 태평양 PNA¹⁾수역 전체 생산량 160만 톤의 37%를 생산하는 중요한 어장이고 참치 생산액 규모는 1조 2,934억 원으로 PNA 전체 2조 9,660억 원의 약 44% 차지하고 있다. 지난 5개년 평균 생산량은 38만 톤, 생산액 규모는 약 1조 816억 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EEZ를 보유한 수산자원국으로서, 전 세계 참치생산량의 15% 생산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 세계 참치생산량 478만 톤 중 키리바시에서 70만 톤을 생산했다.

우리나라의 키리바시 수역 참치 생산량(2015)은 약 20만 톤으로 태평양 수역 전체 약 30만 톤의 67%를 어획하였으며 키리바시 수역 참치 생산액 규모는 3,619억 원으로서 태평양 전체 6,407억 원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개년 평균 연간 생산량 10만 톤, 생산액 2,344억 원으로 태평양 수역의 36%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참치연승선(124척) 중 57%(71척) 입어한 중요한 어장으로, 최근 3년(2014~2016 어기) 평균 12,562톤 어획하였으며 이는 참치연승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²⁾ 우리나라 참치선망선(32척) 중 81%(26척)가 입어 조업 중이며 최근 3년(2014~2016 어기) 평균 136,555톤 어획하여 참치선망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³⁾

(4) 기타 참고사항

1980년 5월 2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15년 현재 주 피지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매년 수산분야 연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1) PNA 나우루 협정 당사국으로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8개국

2) 진출세력/척 : (1996) 116 → (2000) 157 → (2005) 119 → (2010) 102 → (2014) 93 → (2015) 71 → (2016) 77 → (201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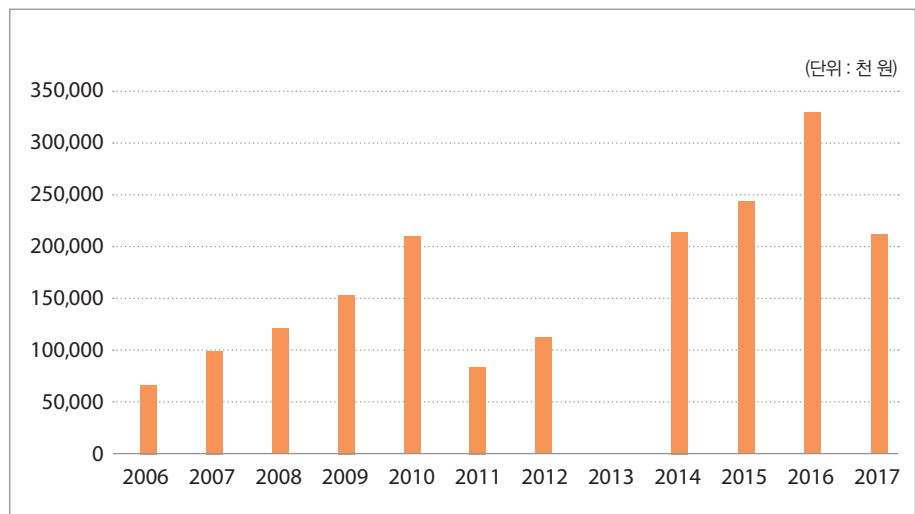
3) 진출세력/척 : (1996) 16 → (2000) 23 → (2005) 27 → (2010) 28 → (2014) 27 → (2015) 26 → (2016) 25 → (2017) 25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6	컴퓨터, 노트북 등	13종 213개 물품	69,256
2007	컴퓨터, 프린터 등	6종 131개 물품	99,839
2008	컴퓨터, 프린터 등	6종 209개 물품	121,020
2009	컴퓨터, 책상·의자, 축구공 등	10종 488개 물품	153,493
2010	굴삭기, 컴프레서 등	8종 203개 물품	209,105
2011	차량 및 진공포장기 등	6종 12개 물품	85,176
2012	가구, 제빙기, 사무기기 등	15종 230개 물품	113,176
2013	미지원		
2014	태양광 발전기, 선외기 등	7종 164개 물품	216,595
2015	양식장 수조, 양식장 실험약품 등	25종 466개 물품	245,233
2016	양식장 수조, 냉장고 등	—	330,572
2017	측량기기, 어류절단기 등	—	213,400
합계			1,856,865

[키리바시 연도별 지원현황]



[키리바시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08



▲ 복사기



▲ 컴퓨터

2009



▲ 어구



▲ 노트북

2010



▲ 포크레인



▲ 잠수장비

2011



▲ 자동차



▲ 제빙기

2012



▲ 책장



▲ 에어컨

2014



▲ 태양광 패널



▲ 진공포장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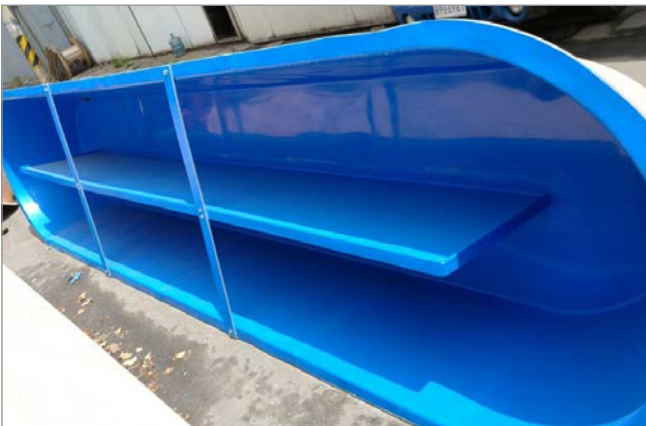


▲ 양식장 수조



▲ 해수펌프

2016



▲ 양식장 수조



▲ 실험실 물품

5) 물자전달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2016





TUVALU

나. 투발루

1) 국가정보

투발루는 남태평양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국가이다. 1877년 엘리스제도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식민지에 편입된 이후 1892년 길버트 제도와 함께 영국 보호령이 되었다. 1916년 엘리스 제도는 길버트제도에 병합되었다가 1975년 분리되어 단독으로 영국의 속령이 되었으며 1978년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하였다.

정식 명칭은 투발루왕국이다. 날짜변경선 서쪽의 9개 섬으로 이루어진 엘리스 제도가 영토이다. 섬은 평균 해발고도가 3m 정도로 낮고 지형이 평평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면 상승으로 인해 수십 년간 2개 섬이 바다 아래로 잠겼다. 머지않아 전 국토가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피지 등 이웃 나라에 국민을 이민자로 받아줄 것을 호소했지만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거부하였고, 2002년부터 뉴질랜드로의 이주가 이민 쿼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발루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DCs)의 하나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여 수도 푸나푸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로 및 풀라카(pulaka)³⁾ 재배 등 전통적 자급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투발루 경제에서는 정부 부문이 압도적이며(2009년 기준 GDP의 89.6%), 해외 원조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수출 품목이 거의 없는 반면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기준 투발루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1) 호주, 2) 피지, 3) 싱가포르, 4) 뉴질랜드, 5) 중국이며, 투발루의 수출 품목은 코프라(말린 코코넛 열매), 우표, 수공예품, 수산자원 정도에 불과하다.

투발루의 주요 수입원은 1) 투발루 해외근로자(주로 선원) 송금, 2) 외국 정부로부터의 입어료⁴⁾, 3) 투발루신탁기금(TTF)⁵⁾ 수익, 4) 인터넷 국가 도메인명(.tv) 대여료 등이다.

3) 풀라카(pulaka)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타로와 유사한 뿌리식물로서 투발루 주민들의 전통적 탄수화물 공급원임.

4) 2008년 기준 해외입어료 수입은 투발루 전체 GDP의 23.8%, 도메인 대여료는 6.3%에 해당함.

5) 투발루 정부는 영국 정부가 독립 후 제공해오던 투발루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1987년부터 16년간에 걸쳐 점차로 중단해나가기로 결정하자, 펀드 설립을 통한 지속적 정부 수입원 마련 방안을 추진함. 이에 따라 1987년 투발루,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부가 기여하여 투발루 신탁기금(Tuvalu Trust Fund)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중 기금의 수익이 투발루 정부 재정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

2) 투발루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80년 6월 18일 한-투발루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동 어업협정하에 투발루수역 조업을 위하여 투발루 수산부와 참치선망어업의 입어조건에 대한 매년 협상을 추진, 입어 조업하고 있으며, 참치연승어업의 경우 개별 입어약정을 통하여 입어조업하고 있다.

(2) 조업현황

1980년 정부 간 어업협정 체결되었으며, 태평양 PNA수역 중 우리나라 참치 조업선(참치 연승, 참치선망선) 어획량 비중이 최대 15%를 차지하는 어장이다. 2017년 기준 24천 톤 어획(태평양 전체 274천 톤의 9% 차지) 하였다.

(단위 : MT)

구분	태평양 전체	투발루수역		이외 수역
			비중	
2010	312,863	48,717	15.6%	264,146
2011	242,202	12,081	5.0%	230,121
2012	298,933	21,408	7.2%	277,525
2013	261,355	22,524	8.6%	238,831
2014	304,577	35,364	11.6%	269,213
2015	304,231	14,197	4.7%	290,034
2016	307,203	44,690	14.5%	262,513
2017	274,963	24,722	9.0%	250,241

[최근 투발루수역, 아국의 참치어업 생산동향]

(단위 : 척)

구분	합계	연승	선망
2010	93	65	28
2011	67	45	22
2012	70	42	28
2013	39	11	28
2014	59	32	27
2015	45	17	28
2016	67	42	25
2017	84	49	25

[최근 투발루수역 참치어업 입어척수]

(3) 어장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태평양 PNA수역 전체 어획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키리바시어장의 인접 어장이며, 중서부태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어장이며, 키리바시어장과 연계 조업이 가능한 중요한 어장 중 하나로써 반드시 필요한 어장이다.

엘니뇨 현상 지속 유지 중이며, 라니냐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동부어장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2015년, 투발루수역 EEZ 내 총 81,655톤 생산(PNA의 약 5%)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선단의 경우, 투발루 수역에서 전채를 많이 실시함에 따라 항구이용률(투발루 수역 전체 전채량 163천 톤의 약 40% 차지)이 높다.

(4) 기타참고사항

투발루는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 가장 빈곤하고 경제 성장도가 낮은 나라로서 부존자원이 없어 국가 재정을 주로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투발루는 Tuvalu Trust Fund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주요 원조국들이 동 Fund에 자금공여를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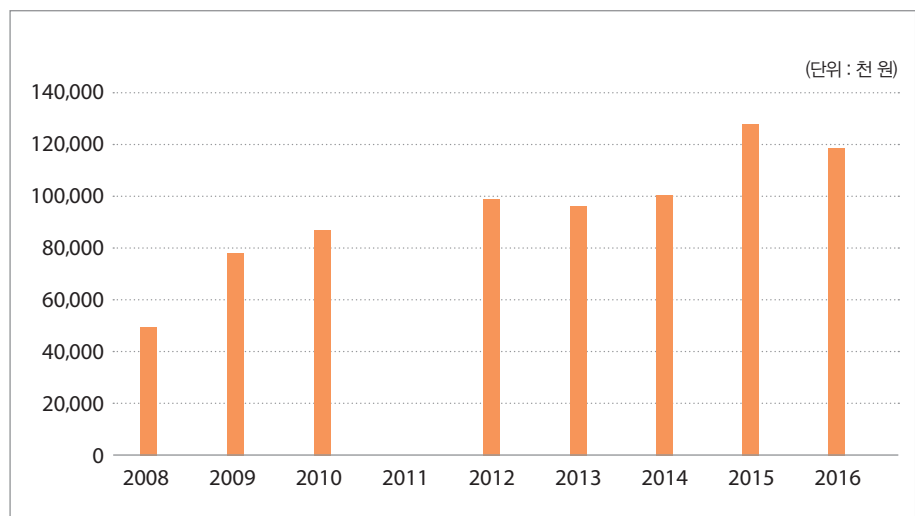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8	컴퓨터, 프린터 등	7종 70개 물품	49,008
2009	컴퓨터, 책상 · 의자, 오토바이 등	6종 115개 물품	78,750
2010	발전기	1종 8개 물품	85,423
2011	미지원		
2012	컴퓨터, 제빙기, 구명동의 등	14종 263개 물품	99,236
2013	노트북, 가구 등	16종 102개	97,396
2014	발전기, 노트북 등	11종 87개 물품	100,401
2015	제빙창고 트럭형 차량	2종 2개 물품	128,450
2016	보트, 오토바이 등	7종 25개 물품	119,630
합계			758,294

[투발루 연도별 지원현황]



[투발루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08



▲ 노트북



▲ 무전기

2009



▲ 발전기



▲ 오토바이

2010



▲ 노트북



▲ 무전기

2011



▲ 컴퓨터



▲ 무전기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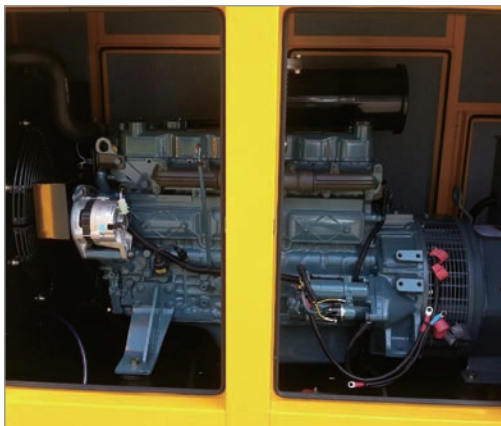


▲ 방수카메라



▲ 에탄올 등 실험시약

2014



▲ 발전기



▲ 일체형 컴퓨터

2015



▲ 제방설비



▲ SUV차량

2016



▲ 오토바이



▲ 소형선박

5) 물자전달식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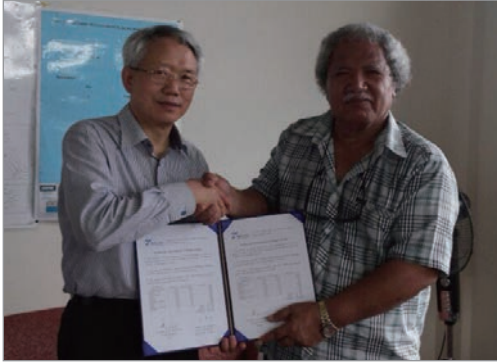
2012



20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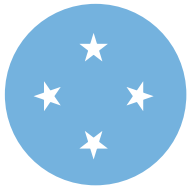


2015



2016





다. 마이크로네시아

1) 국가정보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캐롤라인 제도(Caroline Islands)”로 불리는 섬들의 일부를 구성하며,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16세기 이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인 무역업자, 포경선, 선교사 등이 현재의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대전 후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은 신탁통치령(TTPI : Trust Territory of Pacific Islands)의 일부가 되어 미국이 신탁 통치하게 되었다.

1978. 7. 12 폰페이, 코스라이, 축, 압, 마샬군도, 팔라우는 마이크로네시아연방 구성을 위한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동 헌법은 1979. 5. 10 발효하였으며,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1979~1986년간 이행기간을 거쳐 1986. 11. 3. 독립하였고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폰페이, 코스라이, 축, 압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안을 부결한 마샬군도와 팔라우는 이후 별개 국가로 각각 독립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1982년 미국 측과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측은 동 협정에 따라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동 협정에 따라 1986~2001년간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미국으로부터 13억 불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2003년 개정된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미국 측은 향후 20년간 18억 불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며, 이 자금의 일부는 미국 측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2024년부터 정부 재정이 될 신탁기금 설립에 사용 예정이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경제는 전통적 자급자족 경제와 서구형 현금 경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민간 산업의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 부문이 전체 고용인구의 50% 이상, GDP의 약 40%를 담당한다.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재정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은 한정적인 데 비하여 생활양식의 서구화에 따라 많은 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생선, 카바, 빈랑(Betel nut)이며 수입 품목은 식품, 공산품, 연료 등으로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 일본 등이며, 2010년 참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 64%이다. 연간 18~24백만 불 규모의 외국(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의 입여로 수입은 중요한 정부 재정원 가운데 하나로 2010년 정부 수입의 26%를 차지한다.

2) 마이크로네시아(FSM)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회사별 개별 입어약정(어업협정 미체결)을 체결하여, 개별 입어 조업하였으며, 1993년 2월 한국원양어업협회와 FSM 해양위원회 간 입어약정 체결로 참치선망선 입어조업을 하고 있으며, 1995년 FSM의 해양오염사고 시 연대보증의무 강요에 인하여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결렬되어 동수역 입어가 중단되었다가, 1996년부터 다시 입어조업을 하고 있다.

(2) 조업현황

(단위 : 톤, USD)

구분	조업척수	어획량
2010	28	11,277
2011	28	11,785
2012	28	22,998
2013	28	22,082
2014	27	8,388
2015	26	17,348
2016	25	14,285
2017	25	18,128

[우리나라 참치선망 입어동향]

(3) 어장의 중요성

마이크로네시아 어장에 2017년도 25척의 우리나라 선망선이 조업 중이며, 약 18천 톤의 다량어를 어획하고 있다.

(4) 기타참고사항

FSM 정부는 1991년 9월 유엔가입 이후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뿐 아니라, 인근 선진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통치 경험으로 인해 대외정책은 친미, 친서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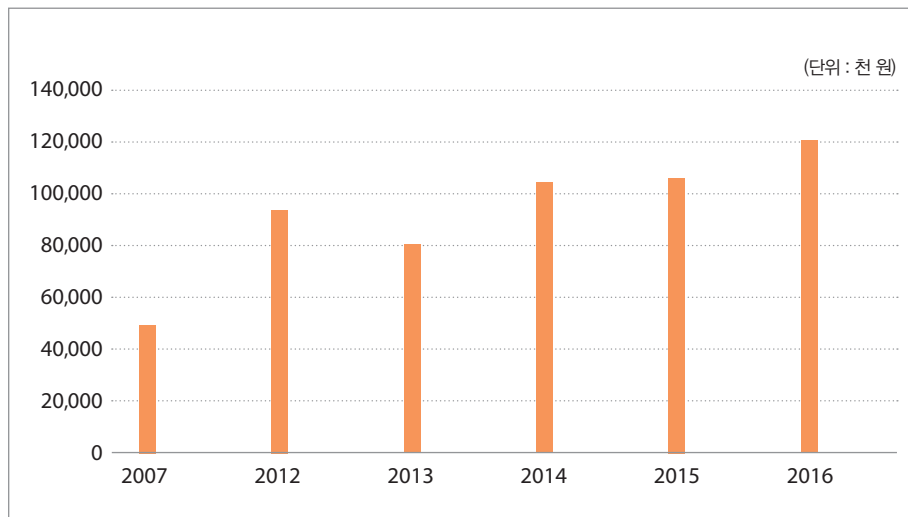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양국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였는바, 1983~84년간 공영토건이 Kosrae주의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였으며, 1987~88년간 한 일개발이 Pohnpei주의 공항 및 병원 건설, FSM연방 정부종합청사 10개 동을 신축하였다.

3)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7	컴퓨터 등 사무기기	6종 67개 물품	49,649
2012	차량, 구명동의 등	14종 262개 물품	93,940
2013	차량, 무전기, 솔라패널 등	5종 65개 물품	80,162
2014	관리선, 차량 등	5종 10개 물품	103,870
2015	관리선, 차량, 사무기기 등	6종 46개 물품	106,063
2016	해수제빙기	1종 2개 물품	120,671
합계			554,355

[마이크로네시아 연도별 지원현황]



[마이크로네시아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12



▲ 사무기기



▲ TV

2013



▲ 노트북



▲ SUV 차량

2014



▲ 연안 관리선



▲ 차량

2015



▲ 연안 관리선

2016



▲ 제빙기

5) 물자전달식

2012



2013



2014



2015



2016





Fiji

라. 피지

1) 국가정보

피지는 약 330개의 섬으로 구성되며, 수도 수바(Suva)가 위치한 본섬(Viti Levu), 북섬(Vanua Levu) 및 주변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지는 서편의 멜라네시아 국가와 동편의 폴리네시아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멜라네시아의 끝, 폴리네시아의 시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멜라네시아 국가이면서도 폴리네시아의 영향도 받아 인종·문화적으로 복합적 특징을 보인다.

피지는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파푸아뉴기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교육·교통 등 측면에서 지역 허브 국가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지역 기구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 태평양도서국들이 함께 설립한 대학인 USP(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가 위치하며, 각국 공관 및 유엔기구의 태평양 사무소 등도 피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126개(2013년 2월 기준) UN회원국과 수교하고 있다.

피지의 2대 주요 산업은 관광산업 및 사탕수수(설탕)이며, 이외 생수, 금, 수산업, 농업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2011년도 피지 방문객은 약 67만 명을 기록하였다. 피지 정부는 2012년 피지관광청 리브랜딩 작업 추진, 국적기 항공사명 변경(Air Pacific→Fiji Airways) 및 신행기종 구매 등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적 기간산업인 사탕수수는 EU의 특혜 가격 철폐,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 생산량 감소로 구조조정 시급한 상태이다.

피지는 수입 초과로 인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로부터의 송금 등으로 일부 보전되고 있다.

한편 2006년 12월 쿠데타 발발에 이후 경제 전반의 부정적인 영향 및 정정 불안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여 2008~2010년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2%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관광 관련 수입 증가(1~7월 동기 대비 7% 증가), 투자목적 대출 증가(1~7월 9.4% 증가), 하반기 중 구인공고 게재 건 증가(1~9월 동기 대비 22.1% 증가) 등 국내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2) 피지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68년~1973년간 우리나라 수산개발공사 소속 어선이 피지 Suva항을 기지로 조업한 바 있으나 이후 사모아 Pagopago로 철수하였다.

(2) 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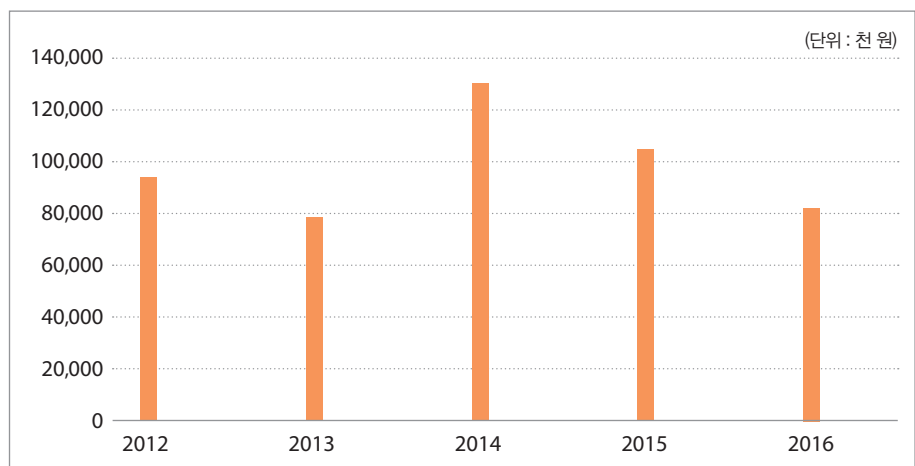
현재는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우리 원양어선들이 수리, 보급, 정비를 위해 피지 Suva항에 연간 50여 척이 입항하고 있으며, 현재 피지어장에서 조업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약 3~40명의 한국인들이 Suva항에 근거를 두고 외국적 및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선장으로 활동하며 참치를 조업 중에 있다.

3)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12	차량, 구명동의 등	14종 263개 물품	94,498
2013	노트북, GPS 등	13종 186개	79,244
2014	냉동창고, 제빙창고 등	2종 2개 물품	131,038
2015	제빙창고, 노트북 등	8종 15개 물품	105,245
2016	보트, 오토바이 등	4종 29개 물품	82,950
합계			492,975

[피지 연도별 지원현황]



[피지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12



▲ SUV



▲ 구명동의

2013



▲ 노트북



▲ 무전원 공급장치

2014



▲ 제방설비



▲ 토너

2015



▲ 제방설비

2016



▲ 연안 관리선



▲ 오토바이

5) 물자전달식

2013



2014



2015



2016





NAURU

마. 나우루

1) 국가정보

나우루는 남태평양상 적도 부근에 위치한 타원 형태의 1개 섬이며, 전체 면적이 21km²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의 하나로 최대 해발 고도는 약 71미터이며(Command Ridge), 인광석이 산출되는 내륙지대(Topside)와 대부분의 주민이 거주하는 해안지대로 구별된다.

나우루의 경제는 인광석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우루인 취업자도 정부 및 국영 인광석회사(Nauru Phosphate Corporation)에 고용되어 있으며 인광석 수출 이외의 수입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외국 정부로부터의 입어로 수입 및 해외원조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나우루는 대부분의 생필품을 호주에서 수입하는 등, 과거 자국의 신탁통치를 담당하였던 호주와 무역, 투자 및 개발원조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 하워드 정부의 소위 “태평양 해법(Pacific Solution)”에 따라 2001년부터 자국 내 호주 난민 신청자 수용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다.

2008년 호주 노동당 집권 이후 폐쇄되었던 호주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이 2012년 9월부터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약 200개의 직업이 창출되었으며 GDP의 약 1.3%에 상당하는 체불 정부 공무원 봉급을 호주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이 지원하기로 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나우루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PNG 수역 미입어에 따른 대체어장 확보 차 1998년 9월부터 나우루 대표단 접촉, 1999년 1월 한국원양산업협회-나우루 수산청 간 입어약정을 체결하고, 동 입어약정하에 나우루 수역 조업을 위하여 나우루 수산청과 참치선망어업의 입어조건에 대한 매년 협상을 추진, 20여 척이 입어조업하고 있다.

(2) 조업현황

(단위 : US\$, 척, 톤)

연도	입어척수	어획량
2010	28	13,984
2011	28	18,671
2012	28	1,650
2013	28	9,322
2014	27	6,435
2015	26	2,929
2016	25	10,559
2017	25	7,039

[최근 나우루수역 참치선망선 입어동향]

(3) 어장의 중요성

나우루 어장은 2017년도 25척의 참치선망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약 7천 톤의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13	차량, 노트북	2종 12개 물품	80,110
2015	발전기, 사무기기 등	8종 26개 물품	61,941
2016	차량, 노트북 등	4종 17개 물품	67,804
합계			209,855

[나우루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2013



▲ SUV차량



▲ 노트북



▲ SUV 차량



▲ 복합기

2015



▲ 사무기기



▲ 발전기

5) 물자전달식

2015



2016





바. 솔로몬 제도

1) 국가정보

코코야자·바나나의 재배와 코프라 생산이 오랫동안 주요 재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낮아졌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원조로 가축 사육과 쌀 재배가 보급되었다. 1958년 이래 카카오가 과달카날섬과 말라이타섬을 중심으로 재배되어 농업 생산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조업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1인당 국민소득은 남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수준이 가장 낮다. 주변 수역은 가다랑어, 다랑어 등을 비롯한 어업자원이 풍부하여 정부는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여 어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남태평양포럼(SPF : South Pacific Forum)의 어업 기관 본부를 수도 호니아라에 유치하였다. 수산물과 목재 및 야자유는 수출품목으로서 매우 중요하여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한다.

최근 경상수지 악화와 인구 급증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경제가 불안한 상태이며, 정부가 목재 수출에 대한 자세를 신랄하고 세입을 늘렸으나 국내 차입도 늘어나고 있어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 1995년 7월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불을 중단하는 재정 위기가 발생하였다. 목재 남벌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공산품과 석유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96년 파푸아뉴기니와 부건빌 위기로 관계가 악화되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목재 생산 증가에 힘입어 6%를 유지하였다가 1997년 3.5%, 1999년 경제성장률은 1.3%로 하락하였다.

수산물, 코프라, 기름, 코코야가 주요 수출품이다. 수출국의 비중은 중국 48%, 한국 9.5%, 일본 8.9%, 태국 4.7%, 이탈리아 4.4%, 필리핀 4.2%(2006년)이다. 총수입액은 1억 5,900만 달러이고 기계·수송기기, 공산품, 식량을 수입하며 주요 수입국의 비중은 오스트레일리아 25%, 싱가포르 23.5%, 일본 7.8%, 뉴질랜드 5.1%, 피지 4.2%, 파푸아뉴기니 4.1%(2006년)이다.

2) 솔로몬과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80년 12월 12일 한-솔로몬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동 어업협정하에 솔로몬수역 조업을 위하여 솔로몬 수산부와 참치선망 및 참치연승어업의 입어조건에 대해 매년 협상을 추진, 참치선망선 28척, 참치연승선 20여 척이 꾸준히 조업하고 있다.

(2) 조업현황

(단위 : US\$, 척, 톤)

연도	참치선망		참치연승	
	입어척수	어획량	입어척수	어획량
2010	28	48,452	13	934
2011	28	47,212	18	932
2012	28	22,855	13	1,355
2013	28	34,309	23	1,831
2014	27	7,380	20	1,505
2015	26	10,799	21	647
2016	25	41,729	1	—
2017	25	39,748	—	—

[솔로몬제도 조업현황]

(3) 어장의 중요성

솔로몬 어장은 2017년도 25척의 참치선망선이 조업, 약 40천 톤의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키리바시 및 투발루에 이어 매우 중요한 어장이다. 참치연승선도 최근까지 20여 척이 조업하는 중요한 어장이나, 2016년도부터 연승 조업일수제도(VDS) 적용에 따라 미입어 상태이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6	차량, 노트북	9종 12개 물품	69,725
2007	컴퓨터, 복사기 등	4종 90개 물품	68,325
2008	컴퓨터, 프린터 등	4종 146개 물품	69,662
합계			207,712

[솔로몬제도 연도별 지원현황]

사. WCPFC

1) 기구정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수산관리기구 중의 하나이다. 사무국은 미크로네시아 폰페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라 2004년 6월 19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2004년 11월 25일 가입하였다.

2)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6	프린터, 프로젝터	2종 2개 물품	20,084
합계			20,084

[WCPFC 연도별 지원현황]

I 아프리카 지원현황



GUINEA

가. 기니

1) 국가정보

15세기에 포르투갈인(人)이 가장 먼저 해안에 도달하고, 그 뒤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쟁탈 대상이 되었다. 1725년 풀라니족(族)이 푸타잘롱 산지에 진출하여 해안지대의 유럽인 세력에 항거하였다. 해안지대는 1814년에 프랑스 세력권으로 인정되어 1849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으나,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무력저항은 말린케족의 지도자 사모리 투레 등에 의해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1891년에 하나의 단위 식민지로 독립시켜 1893년에 프랑스령 기니라고 명명하였다. 그 뒤 기니는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과 더불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왔다. 기니는 1958년 9월 28일에 실시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프랑스 연방 국민투표에서 그 헌법을 거부하고 프랑스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독립하였다.

GDP의 산업별 구성 비율을 보면 농업 22%, 광공업 40.5%, 서비스업 37.6%(2007년 추산)이다. 노동력의 산업별 인구 구성 비율은 농업이 76%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킨디아의 보크사이트 광산 등 지하자원의 개발이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자랑하며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자랑한다. 프리아(FRIA)라는 알루미늄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공장으로서 연간 50만 톤의 생산능력이 있다.

대외무역액을 살펴보면 1950년에 1,07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1963년에는 5,510만 달러, 1998년에는 6억 9,500만 달러, 2000년에는 7억 5,4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하자원 개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금, 다이아몬드, 커피, 어류, 농산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화학제품, 금속, 기계류, 운송장비, 의류, 곡물 및 식료품 등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의 비중은 러시아 11.6%, 우크라이나 9.6%, 에스파냐 9%, 대한민국 8.8%, 프랑스 7.7%, 미국 7.7%, 독일 5.4%, 아일랜드 5.1%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의 비중은 중국 8.6%, 프랑스 8%, 네덜란드 4.8%, 벨기에 4.4%(2006년) 등이다. 통화는 CFA 프랑을 폐지하고 기니프랑으로 변경하였다가 1972년 10월에 실리로 변경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기니프랑을 쓰고 있다. 2005년 1억 8,210만 달러(2005년)의 대외 원조를 받았다.

2) 기니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78년 2월 최초 입어(대호원양)를 계기로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기니 측의 친북정책에 따라 1980년 1월 단교 하였다.

1997년 4월 주 라스팔마스 총영사관이 우리 어선의 안정적 조업확보를 위해 양국 어업협정체결을 건의하였으나, 기니 측의 과중한 입어로 요구 등으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니 수역 원양어선 진출역사

- 1966. 5 : 수산개발공사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어업차관으로 트롤선(601강화 : 1,472G/T) 1척 투입 후 중소형어선 8척이 카나리아 군도, 라스팔마스 근해에서 조업개시
- 1966. 8 : 주변 연안국인 모로코, 모리타니아를 중심으로 조업
- 1978. 2 : 대호원양실업(주)에서 13척 기니 수역 시험조업 실시

(2) 조업현황

민어류, 서대류, 돔류, 갈치, 가오리류, 문어류, 가자미류가 주요 어종으로 30여 척의 어선이 25천 톤 이상의 어획을 기록한 적이 있으나, 2015년도 감척사업 실시로 현재는 트롤어선 3척이 기니와 기니비사우 EEZ 내에서 조업 중에 있다.

(3)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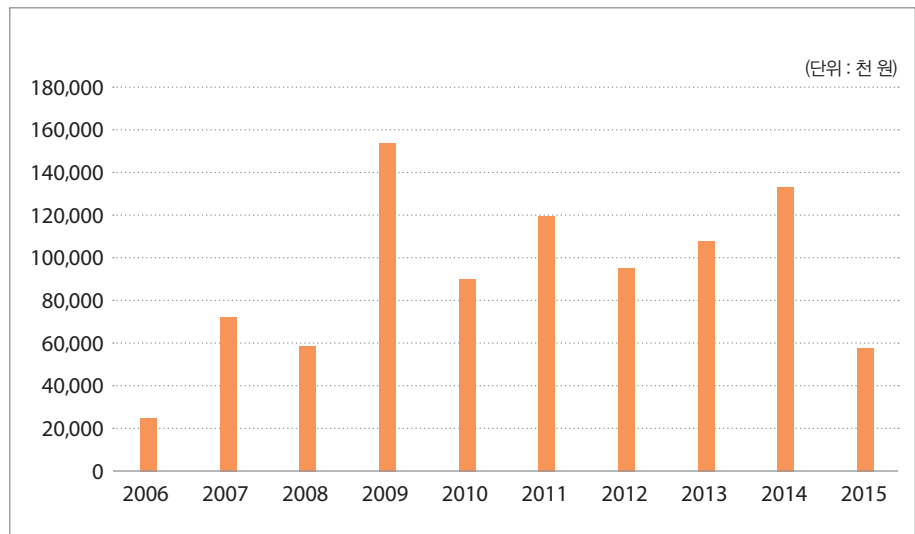
2006년 8월 양국 간 수교(주세네갈대사관 겸임)가 이루어졌으나 어업협정 및 MOU 체결이 미비된 상황에서 입어금지 조치로 전체 원양산 민어류 수급차질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6	컴퓨터, 발전기 등	5종 67개 물품	26,321
2007	컴퓨터, 프린터 등	4종 76개 물품	71,156
2008	컴퓨터, 프린터 등	6종 94개 물품	58,388
2009	컴퓨터, 구명동의 등	5종 249개 물품	76,851
2010	발전기, 프린터	2종 13개 물품	89,483
2011	냉동탑차	1종 5개 물품	119,555
2012	차량, 운동용품 등	6종 123개 물품	95,051
2013	발전기, 사무기기 등	6종 34개 물품	108,459
2014	제빙창고, 냉동창고 등	3종 3개 물품	133,074
2015	차량	1종 2개 물품	56,700
합계			835,038

[기니 연도별 지원현황]



[기니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08



▲ 복사기



▲ 발전기

2009



▲ 컴퓨터



▲ 프린터

2010



▲ 발전기



▲ 복사기

2011



▲ 냉동탑차

2012



▲ SUV 차량



▲ 스포츠 용품

2013



▲ 스캐너



▲ 프린터

2014



▲ 제방설비

2015



▲ SUV 차량



▲ 발전기

5) 물자전달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나. 기니비사우

1) 국가정보

기니비사우는 1446년 포르투갈인(人)에 의하여 발견되어 포르투갈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다. 1979년 이후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카보베르데로부터 분리하여 하나의 단위 식민지 포르투갈령 기니로서 통치하였다. 1956년에 조직된 기니비사우·카보베르데 아프리카독립당(PAIGC)이 중심이 되어 1963년경부터 독립항쟁이 시작되었고, 1971년 여름부터는 독립을 위한 준비가 추진되었다.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밀카르 카브랄의 암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1973년 9월의 전국인민회의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독립선언의 승인을 미루어오던 포르투갈이 1974년 9월에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기니비사우는 정식으로 독립을 성취하였다.

경제 성장률은 3.7%(2007년 추산)이다. 세계의 빈국 중 하나로 1998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벌어진 내전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피해를 입었다. GDP의 산업별 구성 비율은 농업 62%, 광공업 12%, 서비스업 26%(1999년 추산)로 주로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40%, 노동인구의 82%를 차지한다. 국토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 주식인 쌀과 땅콩, 코프라, 아몬드 등이 생산된다. 주요 산업으로 정미(精米), 아자유나 땅콩기를 제조, 및 식품가공업이, 그 외에 주류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독립 후에는 기니·세네갈 등 인접국으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쌀, 식료품, 운송장비, 기계류 등이다. 1997년 전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기니비사우 페소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1997년 5월 UEMOA(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에 가입하고 통화를 세파프랑으로 교체하였다. 2005년도에 79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9억 415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교통, 통신망의 발달이 미약하여 포장도로가 전체 도로의 20% 이하이다. 강을 따라 수로교통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고 비사우, 부바, 카체우, 파림 등의 항구가 있다.

2000년 민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상화가 기대되던 무상원조가 기니비사우 정국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활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 정치 안정화가 EU 등 선진 원조공여국의 대 기니비사우 무상원조 규모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니비사우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78년 1월 양국 간의 수교를 전제로 연안 입어권을 획득하였고 동년 3월 1일부터 트롤선 3척을 투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간수산외교에 의한 국교가 수립되었다.

(2) 조업현황

현재에는 많은 트롤어선들이 감척하여 2017년 12월 현재 트롤어선 3척이 기니와 기니비사우에서 조업하고 있다.

(3) 어장의 중요성

해안선 길이가 120해리로 어장이 협소하나 문어, 오징어, 돔 등 저서어 자원이 풍부하여, 러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입어 조업 중이다.

(4)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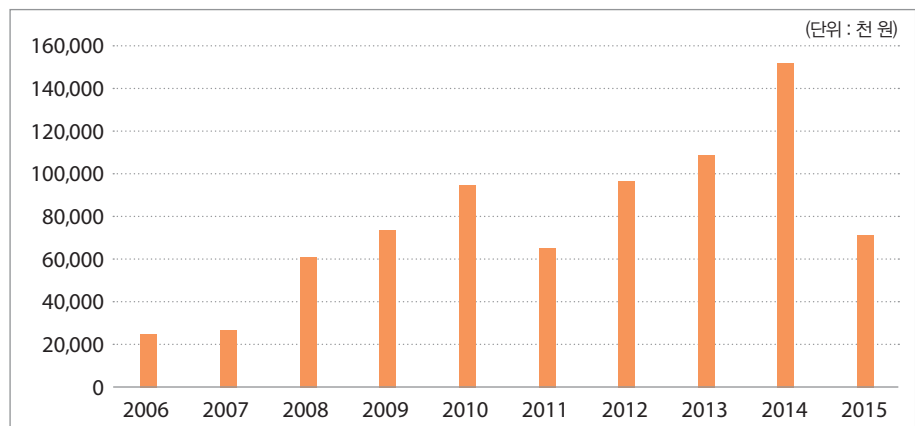
1983년 12월 22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세네갈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6	컴퓨터, 발전기 등	6종 67개 물품	26,321
2007	컴퓨터, 복사기 등	4종 46개 물품	27,357
2008	컴퓨터, 프린터 등	6종 94개 물품	60,845
2009	컴퓨터, 구명동의 등	5종 269개 물품	74,536
2010	발전기, 복합기	2종 12개 물품	89,392
2011	냉동탑차	1종 2개 물품	66,628
2012	차량, 운동용품 등	2종 53개 물품	96,730
2013	발전기, 제빙기 등	3종 14개 물품	109,229
2014	관리선, 사무기기 등	4종 19개 물품	151,693
2015	차량, 사무기기 등	3종 4개 물품	72,036
합계			774,767

[기니비사우 연도별 지원현황]



[기니비사우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08



▲ 복사기



▲ 컴퓨터

2009



▲ 프린터



▲ 제본기

2010



▲ 발전기



▲ 복사기

2011



▲ 토너



▲ 사무기기

2012



▲ SUV 차량



▲ 발전기

2013



▲ 복사기



▲ 제빙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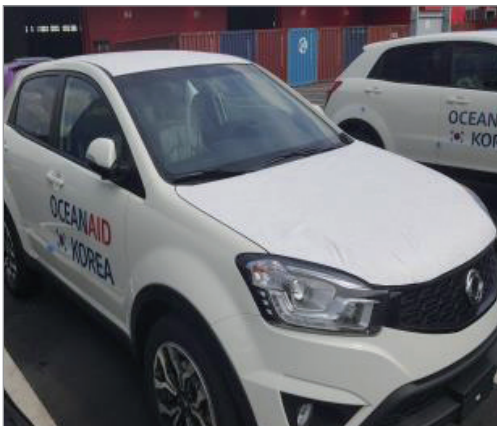


▲ 연안 관리선



▲ 사무기기

2015



▲ SUV 차량



▲ 복합기

5) 물자전달식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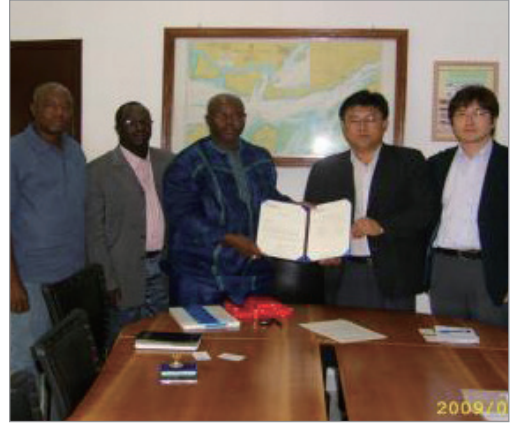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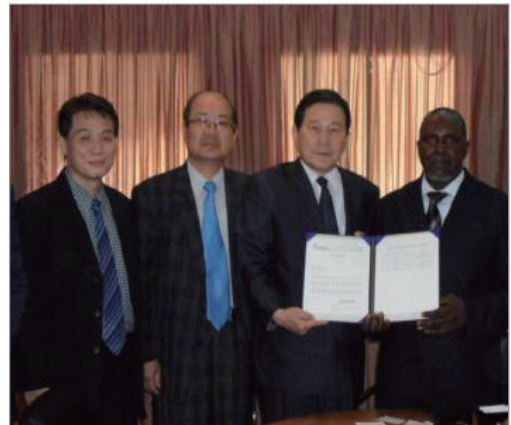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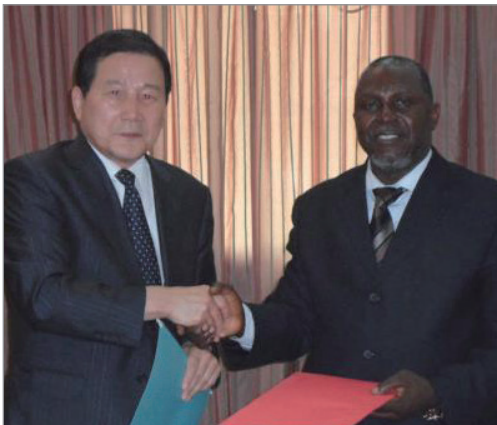
200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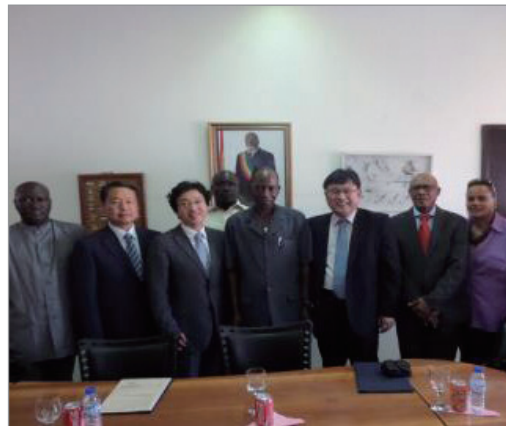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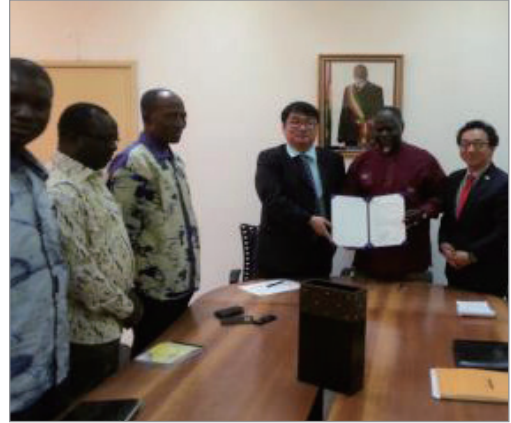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SENEGAL

다. 세네갈

1) 국가정보

세네갈의 정식 국가 명칭은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이다. 현지어(프랑스어)로는 레퓀블리크 뒤 세네갈(Republique du Senegal)라고 한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세네갈의 수도는 인구 약 240만 명 규모의 다카르(Dakar)이다. 다카르는 그리니치 표준시(GMT, Greenwich Mean Time) 기준으로 서울보다 9시간 느리다. 세네갈의 총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1,280만 명이며, 국토의 총면적은 19만 6,722km²이다.

세네갈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121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2010년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 기준으로 1,042달러이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수출은 19억 8,000만 달러이고 수입은 48억 1,000만 달러이다.

세네갈의 화폐단위는 세파프랑(CFA Franc, XOF)이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1달러는 510 세파프랑이고, 1유로는 655.96세파프랑으로 고정되어 있다.

세네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948달러에 불과하여 최빈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세네갈은 농수산물 및 인산염, 금 등 1차 상품의 수출과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송금, 해외원조 수원이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다.

세네갈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World Bank)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경제 구조 조정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5년도 이후 연평균 약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유치, 공기업 민영화, 시장경제의 육성 등을 통해 경제개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세계은행이 2011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1(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네갈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전체 183개국 중 154위로, 127위를 기록한 2006년에 비해 여건이 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 세네갈과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70년대 초 15척의 원양어선이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세네갈 어장에 진출하였으나 국교 관계가 없어 모두 일본 상사를 통해 입어하였다. 이에 따라 입어로 외에 중개료를 일본 상사들에게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남양사가 독자적으로 세네갈 출어를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여러 회사에서 합작 사업으로 진출하였으나 1995년 모두 종결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진출도 단절되었다.

세네갈 수역 원양어선 진출역사

- 1970년대 초 : 국교 미수립 당시, 세네갈 현지 일본상사를 통한 중개료 및 입어료를 내고 약 15척 입어.
- 1974년 5월 : 남양사가 세네갈 국영회사와 어업합작회사 설립하여 1975년 트롤선 10척, 가다랑어선 10척 세네갈수역 출어
- 1974년 12월 : 삼송산업이 세네갈 COSEP사와 합작회사 설립. 참치연승 및 트롤어업, 가공수출 진출
- 1978년 초 : 대림수산 세네갈 PESECO사와 합작하여 PESECO S.A. 합작수산회사 설립. 1994년까지 합작영위

(2) 조업현황

1995년부터 모든 원양어선의 진출은 단절되었으며, 원어협정을 통해 스페인 자본 회사 등이 원어를 어획 후 동원산업이 2012년 10월에 인수하여 설립된 SCA SA사에 납품, 통조림 가공 후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이외에 8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10여 개의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어종은 갈치이다

(3)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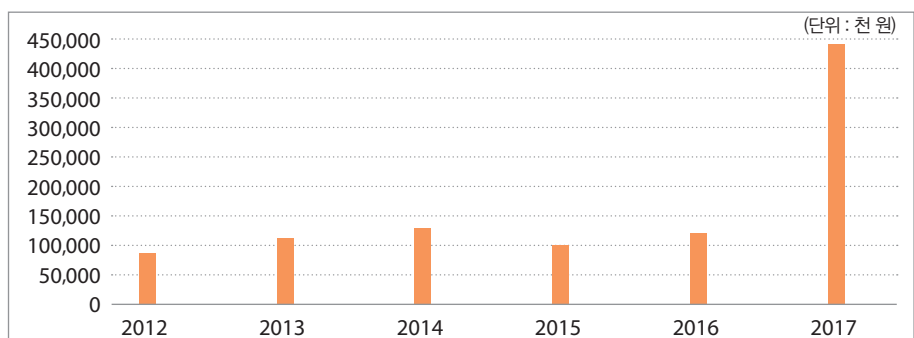
1962년 10월 19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12	차량, 사무기기, 운동용품 등	10종 343개 물품	88,976
2013	차량, 노트북	2종 52개 물품	110,496
2014	관리선, 사무기기, 카메라 등	14종 106개 물품	122,677
2015	제빙창고, 복합기, 오토바이	3종 17개 물품	101,540
2016	차량, 오토바이	2종 11개 물품	116,234
2017	소규모 어시장	냉동 · 제빙설비	440,000
합계			979,923

[세네갈 연도별 지원현황]



[세네갈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14



▲ 연안 관리선



▲ 복사기

2015



▲ SUV 차량



▲ 컴퓨터

2015



▲ 프린터



▲ 제방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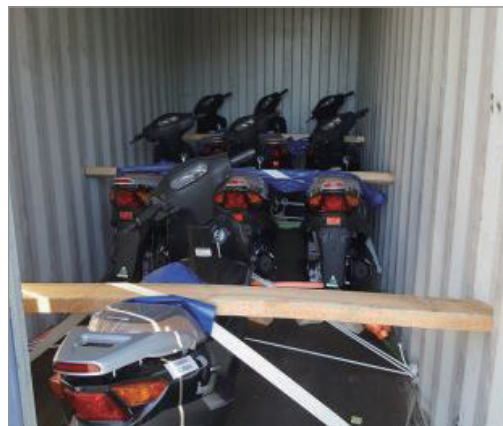


▲ 사무기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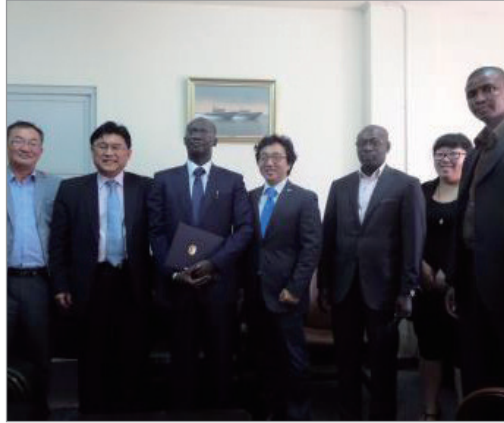
▲ SUV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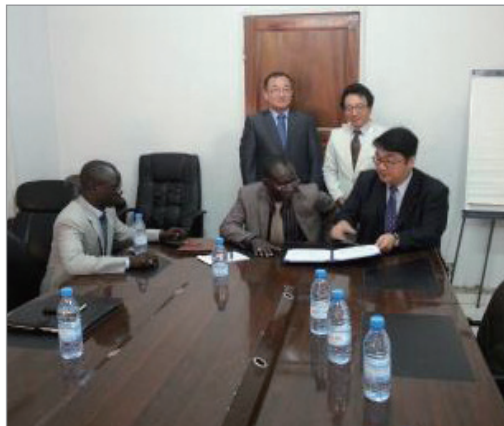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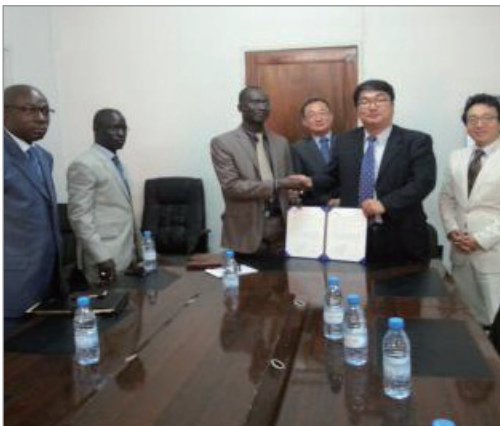
▲ 오토바이

5) 물자전달식

2012



2013



2014



2015





GHANA

라. 가나

1) 국가정보

1957년 3월 황금 해안과 영국과 프랑스령 토고(서부 토고)가 통합하여 영연방 안에서 독립하였으며 아프리카 민족독립의 선봉 구실을 했으며 동시에 나라 이름을 현재의 가나로 고쳤다.

GDP의 산업별 구성은 농업 37.3%, 광공업 25.3%, 서비스업 37.5%(2006년 추산)이지만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 노동력의 산업별 구성 비율이 농업 56%, 광공업 15%, 서비스업 29%(2005년 추산)이다. 주로 금과 카카오를 생산하여 수출하며 에너지, 건설, 운수, 통신 등 기타 산업은 발달하지 않았다. 한때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공업화되고 생활 수준도 높은 나라였으나, 산업의 국유화와 1966년 이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이웃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995~1997년에 IMF와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구조조정으로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화폐가치도 떨어졌다.

주요 수출품은 금, 코코아, 목재, 참치, 보크사이트, 망간광, 다이아몬드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본재, 석유 화학제품, 식료품 등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네덜란드 11.3%, 영국 8.7%, 미국 6.7%, 스페인 5.7%, 벨기에 5.2%, 프랑스 4.4% 등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나이지리아 16.7%, 중국 13%, 영국 5.7%, 벨기에 4.7%, 미국 4.7%, 남아프리카 공화국 4.1%, 프랑스 4.1% 등이다(2006). 과거에는 수출이 카카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6년 이후로는 금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 밖에 목재, 다이아몬드, 망간광석 등도 수출한다. 누적되는 무역 적자와 재정 부담 때문에 2007년 총 13억 1,600만 달러의 해외 원조와 차관을 받게 되었다.

가나는 1964년 12월 28일에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었고, 대한민국과는 1977년 11월 14일에 수교했으며, 가나와 대한민국은 1990년에 경제기술협력협정을 맺었다. 현재 가나에는 한국 교민이 약 600명가량 거주하고 있으며 가나의 對한국 수출품은 코코아, 생선, 폐축산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품은 사이안화 나트륨, 자동차, 프로필렌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73년경 동원산업, 해외어업, 태창수산 등이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으로 가나 진출하면서 시작, 가나와 대한민국이 1977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친한적인 가나인 사장들과 각각 50% 합작 어업 업체를 세워, 일본 원양수산 업체가 떠난 자리를 대신하여 트롤선, 참치 선망선, 가다랑어 채낚기 선단을 갖춰 조업하였다.故김복남 회장이 1978년 설립한 Afko 수산은 당시 수십 척의 원양어선 대선단을 보유하여 운항하며 가나의 5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진출현황

가나 원양어업 및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은 육상종사자 60여명, 해상 선원이 130명이며 수도Accra에서 25km 떨어진 항구도시 Tema에 거주하고 있다. 가나에 살고 있는 한 인수는 약 500명 정도이며, 선교사들을 제외하면 가나 한인사회는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절대 다수이다.

가다랑어 채낚기 한인 수산업체로는 Agnes Fisheries, Asante Fisheries, BSK Marine, DH Fisheries, G-L Fisheries, Rico Fisheries, TRUST allied fishing ventures, World Marine Fisheries 총 8개사가 있고 총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대형 선망선을 보유한 한인 업체는 Panofk, Afko, Agnes, DH 4개사 10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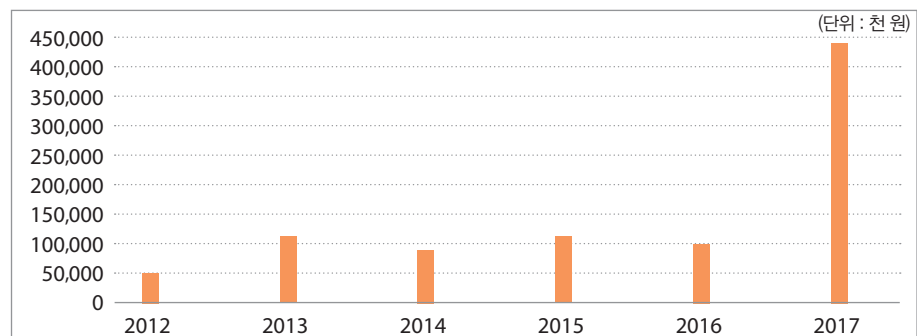
신라교역의 가나 현지 법인인 Cosmo에서 가나 정부 소유 Gafco를 인수, 250톤 이상 원료 처리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으로 재설비하여 2013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Cosmo 가공공장은 완전 가동 시 근로자 1,500~2,000명 정도 고용하게 되며 이외에도 5,000톤 규모의 냉동 창고와 헛감용 참치 가공공장 및 1,500톤 규모의 초저온 냉동 창고를 동시에 가동 중이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12	사무기기, 카메라 등	14종 52개 물품	55,511
2013	차량, 컴퓨터 등	3종 57개 물품	116,853
2014	차량, 사무기기 등	9종 108개 물품	91,868
2015	차량, 오토바이, 구명동의 등	5종 121개 물품	105,540
2016	차량, 노트북, 복사기 등	4종 18개 물품	99,852
2017	소규모 어시장	냉동·제빙설비	440,000
합계			909,624

[가나 연도별 지원현황]



[가나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12



▲ 복합기



▲ 컴퓨터

2013



▲ 노트북



▲ 트럭형 SUV

2014



▲ 트럭형 SUV



▲ 캠코더

2015



▲ 트럭형 SUV



▲ 오토바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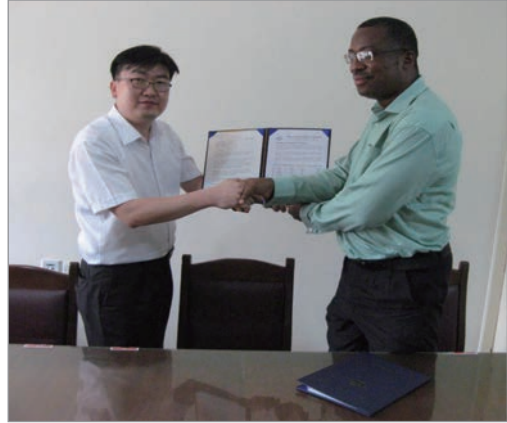
▲ SUV 차량



▲ 복합기

5) 물자전달식

2012



2013



2014



2015



2016





ANGOLA

마. 앙골라

1) 연도별 지원현황

앙골라 공화국(앙골라共和國, 포르투갈어 : República de Angola 헤푸블리카 드 앙골라), 줄여서 앙골라(포르투갈어 : Angola 앙골라)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국가이다. 남쪽은 나미비아, 북쪽은 콩고 민주 공화국, 동쪽은 잠비아와 접한다. 서쪽은 대서양을 달고 있다. 월경지인 카빈다는 콩고 민주 공화국과 콩고 공화국을 접한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는 원유와 다이아몬드 등의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의 부존자원과 국토가 비옥하여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하나, 1975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으로 국토가 파폐해지고, 국가경제계획의 실패와 폐쇄적 사회주의 및 경험 부족 등으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어왔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정부에서는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른 사기업 활동을 허가하고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수입원인 원유의 국제 가격 인상 등에 따라 아프리카의 구매력 있는 시장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실시된 경제재건계획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석유가 수출과 정부 재정수입의 8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며 그 밖에 커피·목화·야자유 등을 생산하는 농업이 이루어지며 주요 수출 작물은 커피이다. 제조업으로는 식품가공업·건설·섬유 등이 있다. GDP 비중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이 9.6%, 광공업이 65.8%, 서비스업이 24.6%를 차지한다. 실업률은 정확히 측정된 바는 없지만 생산연령층의 절반 정도가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는 1976년 4월 수교하였으나 1998년 공관을 폐쇄하였고, 한국과 1992년 1월 수교하였다. 1993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가(假)서명하였다. 1994년 앙골라의 수산장관이 방한하였고, 1995년 한국이 평화유지군으로 공병대 198명을 파병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대(對)한국 수출은 2억 1,900만 달러, 대(對)한국 수입은 10억 3,7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등 광물 연료이며, 수입품은 철강제품과 운송장비 등이다.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앙골라 직접투자는 총 5건, 5백만 달러로 진출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체이다. 현재 교민은 없으며 체류자만 29명 있다.

2) 앙골라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1966년부터 진출한 대서양 트롤선들은 80년대부터 연안국들의 자체 조업 능력 확보 이후 외국 어선들에게 까다로운 입어조건 및 과도한 입어로 요구로 타 어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대체 어장의 하나로 1982년 트롤선 1척(인터볼고)이 앙골라로 첫 출어하였다.

(2) 조업현황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는 인터볼고 1개사에서만 조업하였으나 현재는 현지 국적으로 변경하여 4척이 조업하고 있다

연도별	입어 척수	생산량(M/T)		비고
		총생산량	척당평균	
1999	10	7,770	777	
2000	8	6,444	806	
2001	10	5,486	549	
2002	10	6,626	663	
2003	7	5,408	773	
2004	7	4,603	658	
2005	7	4,459	637	
2006	7	5,000	714	
2007	6	3,329	555	
2008	6	3,597	600	
2009	6	3,087	515	
2010	6	2,902	484	
2011	6	2,485	414	
2012	7	3,032	433	
2013	11	2,528	230	
2014	11	2,740	249	

(3) 어장의 중요성

앙골라 어장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개방되지 않은 어장으로, 전 해역에 걸쳐 어족자원(민어류, 서대류, 가오리류, 전갱이류)이 풍부하고 경제성이 있어 러시아, 스페인, 중국의 어선이 현재(2017년 12월) 100여 척 진출하고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1992년 1월 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주남아공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앙골라는 EU, NORAD(노르웨이 국제협력단), FAO, UNDP, 아프리카 개발은행, IFAD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수산에 대한 기술적 원조를 받고 있다.

- **암브리즈의 전통어업 개발 프로젝트** : UNDP의 2백만 달러 양도
- **앙골라 북부지역 어업단체 개발프로젝트** : IFAD의 7백 5십만 달러 대출
- **전통어업 개발 프로젝트** : 아프리카 개발 은행의 9백만 달러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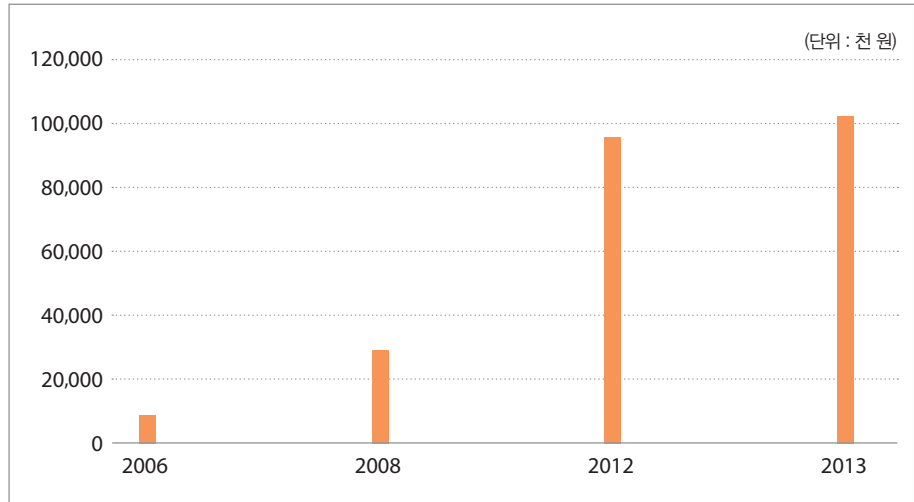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06	컴퓨터, 노트북, 구명동의	3종 107개 물품	11,106
2008	운동복	1종 930개 물품	28,830
2012	차량, 사무기기 등	8종 80개 물품	96,674
2013	발전기, 어구 등	3종 338개 물품	103,183
합계			239,793

[앙골라 연도별 지원현황]



[앙골라 지원현황 추이]

4) 지원물품

2008



▲ 유니폼



2012



▲ 트럭형 SUV



▲ TV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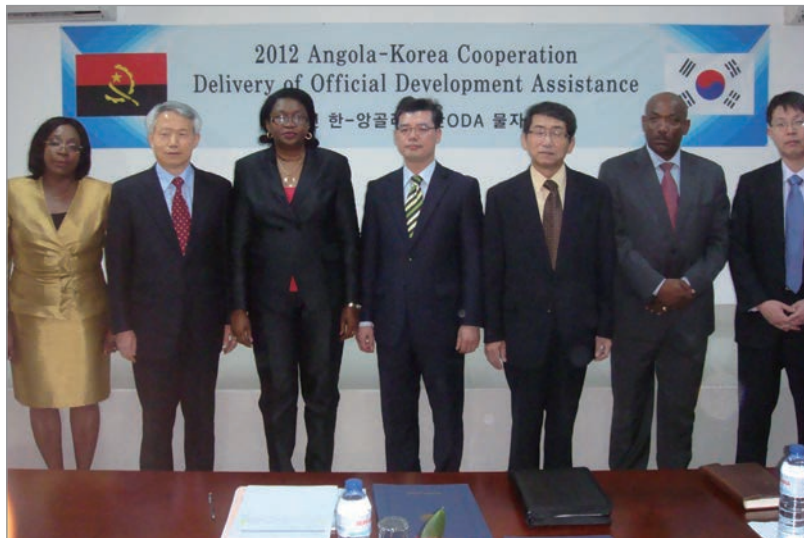
▲ 발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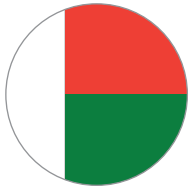


▲ 어구

5) 물자전달식

2012





바. 마다가스카르

1) 국가정보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1811년 영국의 점령 이후 프랑스와 쟁탈전을 벌이다 1896년부터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 1957년 프랑스 공동체의 말라가시(Malagasy) 공화국으로 있다가 1960년 6월 26일 독립하였다.

정식 명칭은 마다가스카르 공화국(Republic of Madagascar)이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모잠비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마주한다. 최초의 거주인은 인도네시아인이지만 인도양에 위치한 관계로 인도네시아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부터 계속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1996년 이후 비동맹 중립을 표방한 좌경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행정구역은 6개 주(faritany)로 이루어져 있다.

마다가스카르의 산업별 GDP 구성비율은 농업 27.3%, 제조업 15.8%, 서비스업 56.8%(2007년 추산)이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는 농업이 중심이며, 수출 최대 품목은 커피로 수출 총액의 45% 정도(1997년)를 차지한다. 그 밖의 수출품으로는 바닐라 · 설탕 · 쌀 · 새우 · 향료 · 목화 등이다.

한국은 매년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 기자재 공여사업과 연수생 초청사업을 전개하고, 한국 기업이 투자와 통상 등을 펼치면서 실질관계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한국 기업의 대(對) 마다가스카르 투자 및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2007년 광업진흥공사가 암바토비에 니켈광 합작 투자에 진출했다. 또한 UNDP와 협조, 마다가스카르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2006년 기준 대(對)한국 수입 1,600만 달러, 수출 165만 달러이다.

2)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15	컴퓨터, 노트북, 구명동의	3종 632개 물품	67,443
2016	냉동창고	1종 1개 물품	78,869
합계			146,312

[마다가스카르 연도별 지원현황]

3) 지원물품

2015



▲ 사무기기



▲ 컴퓨터

2016



▲ 냉동창고



4) 물자전달식

2015



I 남미 지원현황



가. 페루

1) 국가정보

정식 명칭은 페루공화국(Republica del Peru)이다. 북쪽으로 에콰도르·콜롬비아, 동쪽으로 브라질, 남동쪽으로 볼리비아, 남쪽으로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 태평양에 면한다. 아마존 유역에 대한 연고권을 둘러싸고,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페루 부왕령(副王領)에 같이 속했던 에콰도르와 독립 이후부터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고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다. 다인종 국가로, 고대 잉카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인디오가 전체 인구의 반 가까이 되지만 정치·경제의 실권은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백인이 장악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25개 주(region)와 1개 지역(provincia)으로 되어 있다.

2009년 기준 수출액은 265억 3,500만 달러, 수입액은 218억 6,4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등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페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총수출액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이른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수산물, 섬유류,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전통 수출품이 79.8% 이상을 차지한다. 수입품은 주로 원유, 플라스틱, 농기구, 산업기계, 건축자재 등 원자재와 자본재, 그리고 밀 등 1차 농산물이 주류를 이룬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25.6%), 중국(12%), 캐나다(8.4%), 칠레(5.9%), 일본(5.4%), 스위스(4.2%)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20.1%), 브라질(8.1%), 에콰도르(7.5%), 중국(6.9%), 칠레(6.4%), 콜롬비아(6.2%), 아르헨티나(5.2%), 베네수엘라(4.3%)이다.

2) 페루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관계

(1) 진출경위

UNCLOS 발효에 따른 연안국 200마일 EEZ 선포와 규제 강화, UN수산 결의로 인한 북양오징어 유자망 조업금지(1993년 발효) 동향 및 새로운 어장 개척 필요성 등을 감안, 1990년부터 페루 정부의 국제경쟁입찰, 2000년대 임시 법령에 따라 입어조업하여 주로 대왕오징어(가공용)를 어획하였다.

1997년 수산물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멕시코산 반가공용 오징어(다루마)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 약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장이동 시 채산성 약화 등으로 상반기 포클랜드 조업, 하반기 페루 조업이라는 이모작 형태의 조업효율을 상실하여 2000년도 이후 점차 조업선이 감소하였다.

2010년 페루의 자원자국화 및 자국어선 보호정책(페루 생산부령), 실질적 어업협력 부재국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발급거부, 2012. 2월부터 현재까지 외국국적어선 입찰추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조업현황

년도별	출어 척수	생산량(M/T)		
		EEZ	공해	합계
2010	10	7,182	7,324	14,506
2011	8	—	7,746	7,746
2012	6	—	6,655	6,655
2013	8	—	7,067	7,067
2014	5	—	6,977	6,977
2015	2	—	4,262	4,262
2016	4	—	3,824	3,824

[페루 조업현황]

(3) 어장의 중요성

페루 공해어장에서는 원양채낚기 일부선사에서 포클랜드 조업 후 7월 이후 이동하여 한국 국적선 약 4~8척이 페루 공해수역에서 하반기 2~3개월 시즌 조업 중이며, 대체로 어획물은 Callo항에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원양산 오징어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하여 포클랜드 대체어장으로써의 페루수역 어장(EEZ 포함) 유지 및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천 원)

연도	주요 지원물품	지원수량	지원금액
2012	컴퓨터, 노트북, 구명동의	7종 79개 물품	87,400
2013	컴퓨터, 노트북, 사무기기 등	15종 235개 물품	107,522
합계			194,922

[페루 연도별 지원현황]

4) 지원물품

2012



▲ 트럭형 SUV



▲ 구명동의

2013



▲ 블루레이 플레이어



▲ 무정전 전원장치

5) 물자전달식

2012



2013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연혁집

2018.10

발 행 처 해외수산협력센터

발 행 일 2018년 10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전 화 044-868-7362

인쇄·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업력센터